



산림자원 순환경제모델 창출로 경제임업 실현!

- 선도 산림경영단지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모델로 활성화하고자 8월 29일 경상남부권을 시작으로 9월 13일 경상북부권 토론회를 최종 개최하여 총 5회에 걸친 현장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 산림자원 순환경제 :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순환이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산림과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경제

이번 권역별 현장토론회는 지난 4월에 열린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성과 토론회와 6월에 열린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활성화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마련되었다. 산림청,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조합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9월 13일 개최한 경상북부권 토론회에서는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1개소(경북 영주), 사유림 단지 3개소(울산 울주, 경북 의성, 포항)의 단지별 경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 확산과 산주 경영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권역별 토론회에서 논의된 성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시작을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다양한 산림경영모델로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 1. 토론회 세부 계획 1부, 2.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황 1부.

담당 부서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책임자	과 장	김종근 (042-481-4180)
		담당자	사무관	남궁보선 (042-481-4181)

붙임1 선도 산림경영단지 토론회 개최

□ 회의목적

- 단지별 자원생산 여건과 지역의 목재산업 수요를 반영한 경영목표 점검
- 산주 중심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단지별 산주 경영참여 확대방안 마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3. 9. 13. 15~17시 / 임업인종합연수원(청송)
- (참석) 30명, 산림청, 경북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조합중앙회, 지자체 선도 담당,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가 등

□ 회의내용

- 단지별 경영목표 및 사업내용 등 발표
- 경영현황 분석, 경영모델 구축 및 산주 참여 제고 등 논의

□ 시간계획

시간계획	내 용	비 고	
15:00~15:05	5분	■ 회의 안내 및 참석자 소개	담당 사무관
15:05~15:10	5분	■ 인사 말씀	산림산업정책국장
15:10~15:50	40분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현황 발표 ① 국유 영주 장군봉 ② 울산 울주 ③ 의성 점곡 ④ 포항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가 발표 (10분)
15:50~16:50	60분	■ 종합 토론	
16:50~17:00	10분	■ 마무리 말씀 및 종료	

※ 권역별 선도 산림경영단지 토론회 개최 현황

권역	일자	장소	해당 선도단지	비고
경상 남부권	8.29(화)	의령군청 회의실	(사유림) 거창 호음산, 산청 모고, 의령 응봉산, 함천 두무산, 고성 갈모봉	5개 단지
강원권	8.31(목)	횡성군청 회의실	(사유림) 흥천 북방, 삼척 하장, 인제 상남, 춘천 사북, 횡성 청일 (국유림) 북부청 흥천 가리산, 동부청 평창 봉평	7개 단지
충청권	9.5(화)	청양군청 회의실	(사유림) 청양 비봉산, 홍성 오서산, 천안 병천, 음성 감곡 (국유림) 중부청 보은 생불산	5개 단지
전라권	9.7(목)	장수군청 회의실	(사유림) 진안 용담, 보성 봉화산, 순천 별량, 원주 화산, 무주 무풍, 곡성 죽곡, 장수 장안산 (국유림) 서부청 무주 민주지산	8개 단지
경상 북부권	9.13(수)	임업인 종합연수원	(사유림) 의성 점곡, 울산 울주, 포항 (국유림) 남부청 영주 장군봉	4개 단지

붙임2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황

- ▶ (목표) 선도 산림경영단지 확대와 권역별 산림SOC 집중으로 경영거점 조성
 - 산림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 권역별 목재생산 기지 육성

□ 사업개요

- (목적) 산림경영 규모의 취약성과 임업의 장기적 경영여건 등을 개선하고 산림경영의 성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
- (추진방향) 단지를 중심으로 목재, 단기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생산·이용이 선순환되는 경제체계 구축
 - 대면적 일괄동의에 따른 임도망 등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 산주협의체를 통한 영세산주 경영참여와 민간주도의 자율적 산림경영 유도

□ 추진현황

- 국유림 시범사업('12~'13) 후, '14년부터 사유림으로 확대 현재 29개소 조성
 - (국유림) 지방청별 1개소(총 5개소) 조성, 각종 시범사업 성과 확산
 - (사유림)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지자체·산주의 의지가 높은 지역 공모 선정

□ 운영계획

- 국유림과 사유림의 단지 운영을 차별화하고, 경영거점화 추진
 - (국유림) 지속 운영을 통해 선도적 경영기술을 개발 사유림에 확산
 - * 5개 단지 전담팀 운영, 국립산림과학원 등 시범사업 확대
 - (사유림) 단지를 확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림자원순환경제 모델 육성
 - * 경영체 육성 등 자율경영기반 마련, 사업 종료후 산주협의체 주도 자율 경영
 - (거점화) 권역별 경영거점을 조성, 산림SOC를 집중 목재생산 기지로 육성